

REUTERS KOREAN WEEKLY NEWSLETTER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 ◇ (분석)-'테이퍼링'은 없다는 중앙은행들과 밀지 않는 시장
 - ◇ (시장진단)-美 금리 급등에 달러/원 3주 최고치로 속등..양방향 수급 '격돌'
 - ◇ (칼럼)-한은 총재가 양적완화 아니라지만 실망할 이유 없다
 - ◇ (초점)-국고 10년 2% 터치와 한은의 확대 단순매입 발표..국내 금리 향방은

.....
 발행: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춘식 choonsik.yoo@thomsonreuters.com
 뉴스레터 관련: reuters.korea@thomsonreuters.com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각국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진행하면서 정상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는 백신 접종을 받으면 무료 음료를 제공하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로이터/코리나 킴 기자)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2월26일 종가 기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20(%)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20(%)
달러 대비	1,123.5	-1.6%	-3.3%	+6.5%	유로	1.2074	-0.4%	-1.2%	+8.9%
100엔 대비	1,054.2	-0.7%	-0.3%	+1.1%	엔	106.58	-1.1%	-3.1%	+5.2%
유로 대비	1,357.0	-1.4%	-2.3%	-2.3%	위안	6.4557	0.5%	1.1%	+6.7%
위안 대비	173.51	-1.5%	-4.1%	-0.3%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20(%)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20(%)	다우존스	30,932.37	-1.8%	1.1%	+7.2%
코스피	3,012.95	-3.0%	4.9%	+30.8%	나스닥	13,192.35	-4.9%	2.4%	+43.6%
코스닥	913.94	-5.3%	-5.6%	+44.6%	S&P500	3,811.15	-2.4%	1.5%	+16.3%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0(bp)	MSCI APxJP	693.59	-5.8%	4.7%	+19.8%
국고채 3Y	1.020%	2.4bp	4.4bp	-38.4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0(bp)
국고채 5Y	1.449%	10.5bp	11.4bp	-14.5bp	미국채 2Y	0.129%	2.0bp	0.8bp	-144.0bp
국고채10Y	1.960%	8.5bp	24.7bp	+3.0bp	미국채 10Y	1.407%	6.7bp	49.5bp	-99.8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20(%)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20(bp)
유가(WTI)	61.50	3.8%	26.8%	-20.5%	한국 5Y	24.1bp	1.9bp	2.1bp	+0.1bp
금(현물)	1,733.49	-2.7%	-8.6%	+25.0%	일본 5Y	14.9bp	0.1bp	-0.1bp	-4.5bp
TR상품지수	2,915.17	1.4%	8.8%	+7.8%	중국 5Y	32.3bp	3.6bp	4.3bp	-3.6bp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레피니티브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정부 공식 홈페이지 ⇒ [CLICK HERE](#)

국내 주요 주간 일정

<3월 1일(월)>

- 산업부, 2월 수출입 동향(09:00)
- 공휴일

<2일(화)>

- 통계청, 1월 산업활동동향(08:00)
-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3일(수)>

- 기재부, 부총리·1차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10:00) 및 1차관 브리핑(13:30)
- 한은, 2020년 4분기중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12:00)

<4일(목)>

- 한은, 2월말 외환보유액(06:00)
- 한은, 2020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08:00)
- 통계청, 2월 소비자물가동향(08:00)
- 기재부, 부총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0:00)

<5일(금)>

- 기재부, 국채 백서 「국채 2020」 국·영문판 발간(11:00)
- 통계청, 1월 온라인쇼핑동향(12:00)

해외 주요 주간 일정

<3월 1일(월)>

- 일본, 2월 지분은행 제조업 PMI (09:30)
- 중국, 2월 차이신 제조업 PMI 최종 (10:45)
- 유로존, 2월 마켓 제조업 PMI 최종 (18:00)
- 미국, 2월 공급관리협회(ISM) 제조업 PMI (자정)
- 미국, 1월 건설지출 (자정)
- 대만 휴장

<2일(화)>

- 일본, 1월 실업률 (08:30)
- 일본, 4분기 기업설비투자 (08:50)
- 호주, RBA 통화정책 회의 (12:30)
- 유로존, 2월 소비자물가지수 (19:00)
- 미국, 2월 공급관리협회(ISM) 뉴욕지수 (23:45)

<3일(수)>

- 중국, 2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 (10:45)
- 유로존, 2월 마켓 서비스업 PMI (18:00)
- 유로존, 1월 생산자 물가 (19:00)
-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21:00)
- 미국, 2월 ADP 전국 고용동향 (22:15)
- 미국, 2월 마켓 서비스업 PMI 최종 (23:45)
- 미국, 2월 공급관리협회(ISM) 비제조업 PMI (자정)

<4일(목)>

- 미국, 연방준비제도 베이지북 발행 (04:00)
- 유로존, 1월 소매판매·실업률 (19:00)
- 미국, 2월 챌리저 해고건수 (21:30)
-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2:30)
- 미국, 4분기 노동비용 수정치 (22:30)
- 미국, 1월 내구재주문 수정치 (자정)
- 미국, 1월 공장주문 (자정)

<5일(금)>

- 미국, 2월 비농업부문 취업자수·실업률 (22:30)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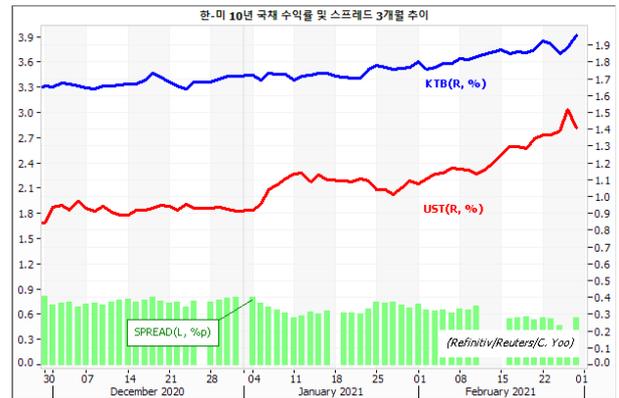
<외환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미국 국채 금리 흐름을 주시하면서 변동성 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 예상 주간 환율 범위는 1105-1130 원이다.
- 미국 경제의 강한 회복 전망을 바탕으로 촉발된 미국 금리 상승세가 국제 금융시장 내 변동성을 연일 자극하고 있다.
- 1일 발표된 2월 한국 수출은 예상대로 견조한 회복세가 확인됐다. 특히 일평균 수출은 26.4% 급증해 40개월 만의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 다만, 이같은 양호한 펀더멘털에도 달러/원은 당분간 주로 미국 국채 금리 행보 따라 변동성 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박스권 이탈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대외 시장 여건 따라 상승 변동성에 취약한 흐름은 나타날 전망이다.
- 특히 이번 주 후반에 있을 미국의 2월 비농업 고용 지표 발표를 앞두고 시장 경계는 커질 전망이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은 지난주 의회에서 "경제는 우리의 고용과 물가 목표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상당한 추가 진전이 달성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최저금리 정책을 유지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 한편 미국의 1.9조달러 규모 재정 부양책이 상원을 통과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 또한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 등 중국의 정치 행사 일정에 따른 위안화 흐름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 국내 주요 지표로는 1월 산업활동동향(2일), 2월 소비자물가지수, 연간 국민소득(잠정) 및 2월 외환보유액(4일) 등이 있다.

<채권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긴축 없는 발작이 나타나며 지난주 대내외 금리가 널뛰기를 했다.
- 아직 헤드라인 물가지수가 유의미하게 올라오지 않은 상황에서 글로벌 국채 투자자들은 포지션 청산을 멈추고 잠깐 상황을 관망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지난 10여년간 나타나지 않았던 물가 상승 압력이 신흥국을 중심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 국채시장은 '이래도 계속 돈을 풀 거야?'라고 연준에 묻고 연준은 '아직은 아니야'라고 답하는 장면이 당분간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시장의 발작도 반복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 국내 채권시장은 예상보다 적은 추가경정예산용 적자국채 발행, 한국은행의 5조~7조원 규모 국고채 단순매입 발표 등을 반영하며 주 초반 강세를 보일 전망이다. 다만 경기 지표 반등과 대내외 인플레이션 기대 등이 랠리를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1조 9천억달러 규모 경기 부양책 통과 여부가 관건이다. 오는 14일이 추가 실업급여 지급 종료일인 만큼 어떤 식으로든 그 이전에 경기 부양책을 상원에서 통과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경기부양책 통과 시점과 맞물리며 미국 국채시장이 다시 한번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 주 후반엔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도 예정돼 있다. 경제정책을 결정할 전국인민대표대회는 5일 시작된다. 올해 양회는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시장에 영향을 줄 정책 등이 주목된다.

(분석)-'테이퍼링'은 없다는 중앙은행들과 믿지 않는 시장

런던 (로이터) -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금리 인상뿐 아니라 당분간 양적완화를 축소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은 이를 믿지 않는 듯하다.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25일(현지시간) 1.6%를 상회하며 1년래 최고치까지 상승했다. 10년물 수익률은 올해 근 50bp 급등했고, 이에 유럽, 일본 등 국가의 국채 금리도 상승세를 보여왔다.

현재 시장의 생각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지출 증가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백신에 의한 경제 재가동이 글로벌 성장과 인플레이션 반등을 이끌 것이고, 이에 중앙은행들은 예정보다 빨리 긴축을 하거나 부양책을 철회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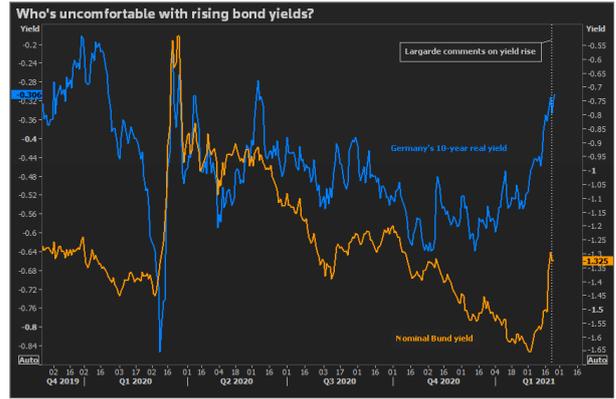
밝은 경제 전망은 실제로 수익률 상승을 정당화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시장을 위협하는 것은 실질 수익률이 갑작스럽게 상승할 가능성이다. 이 경우 금융 여건이 위축되고, 주식시장에서는 현금이 빠져나가고, 경기 회복을 저해할 수 있다.

이는 정책입안자들에게도 우려사항이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부터 에이드리언 오르 뉴질랜드 중앙은행 총재까지, 이번 주 많은 이들은 정책이 당분간 완화적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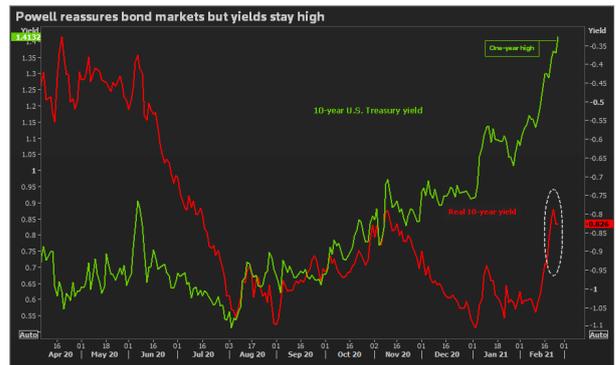
하지만 이제 누구도 이 말을 듣지 않는 듯하다.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에 3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밝혔음에도 수익률은 단 몇 bp 하락했다.

유로존 수익률 역시 지난 22일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의 수익률 상승 예의주시 경고에도 잠깐 반응했을 뿐이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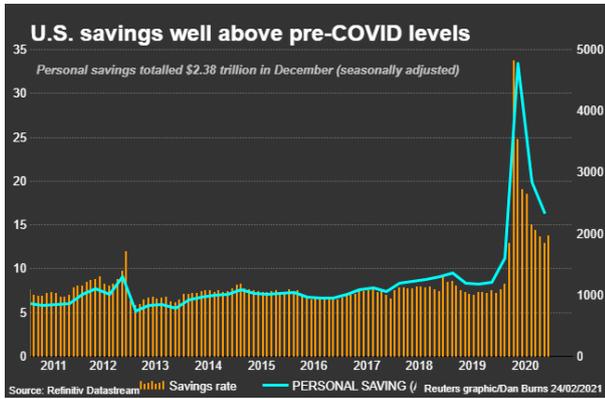
ING 은행은 이것이 시장이 초완화적 정책의 종료를 "매우 높은 확신을 가지고"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미국 경제 회복 강도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매우 강하고 널리 퍼져 있어 '테이퍼링' 보트는 이미 항해하고 있다"며 테이퍼링이 연준 서베이에서 전망된 2022년 초보다 이른 2021년 말경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머니마켓은 투자자들이 내년 연준의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일부 베팅은 심지어 더 이른 시기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로/달러 선물은 2022년 말까지 약 64%의 확률로 금리가 25bp 인상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일주일 전만 해도 가능성은 52%였다.

인사이트 인베스트먼트의 에이프릴 라러스 채권투자 헤드는 "중앙은행은 시장에 '그만뉘, 너무 지나쳐'라고 말하고 있지만, 시장은 새로운 데이터가 나오면 중앙은행들이 마음을 바꿀까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만약 여행, 외식, 쇼핑이 몇 달 안에 완전히 재개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억눌린 수요 달러 규모의 저축이 풀어질 수 있다. 작년 12월 기준 미국에서만 개인 저축액은 계절 조정 후 연율로 총 2조 3,800억 달러 수준으로 이는 팬데믹 이전 그 어느 때보다도 많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다른 지역

다른 곳에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 24일 오르 뉴질랜드 중앙은행 총재가 경제에 대한 하방 리스크 가능성에 대해 강조한 것은 경제 지표에 나타난 부른 전망과는 대조적이었다. 뉴질랜드 채권 수익률은 오르 총재의 발언을 무시하며 11개월래 최고치까지 상승했고, 오버나잇 인덱스 스왑(OIS)은 2021년 말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하기 시작했다.

물론 경제 성장 국면에서 초완화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약속은 인플레이션 전망만 더 강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시장은 중앙은행들이 그저 말로 설득하기보다 행동에 나서도록 만들 수 있을까?

이 점에서 연준이 직면한 딜레마는 다른 중앙은행들보다 덜하다.

일본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2018년 말 이후 최고치 부근인 0.12%를 기록 중으로, 이는 수익률을 0% 부근으로 유지하겠다는 일본은행에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ECB 역시 수익률 상승에 대처하기 위해 긴급자산 매입 프로그램 하에 채권 매입을 확대해야 할 수도 있다.

제이콥 벨 모간스탠리 유럽경제 담당 헤드는 "현재로서 시장과 중앙은행간 갈등이 아닌 긴장 상황으로 볼 수 있다"며 "연준은 시장이 자신들보다 경제 성장세가 더 강하다고 여기는 것은 괜찮다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과 싸우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장진단)-美 금리 급등에 달러/원 3주 최고치로 속등..양방향 수급 '격돌'

(2월 26일 기사입니다.)

서울 (로이터) 박예나 기자 - 미국 국채 금리 급등에 달러/원 환율은 3주 만의 최고치로 속등해 상승 변동성을 대거 키우고 있다.

간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장중 한때 주요 저항선인 1.5% 선을 단숨에 뚫고 1년 만의 최고치인 1.6%대로 치솟자 위험자산과 통화들이 털썩 주저앉는 등 국제 금융시장이 일제히 요동쳤다.

이같은 흐름은 26일 아시아 금융시장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달러/원 환율은 개장과 함께 1120원대 초반으로 속등해 지난 5일 이후 최고치로 올라섰다.

다만 환율은 적극적인 네고 출회에 따른 달러 공급과 역외를 비롯한 외인 증권 관련 커스터디 중심의 달러 매수세 간 치열한 힘겨루기 양상 속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환율이 박스권 상단 근처로 급등하자 수출업체들은 물량을 쏟아내고, 이에 환율은 한때 1120원을 밀돌며 상승폭을 줄이는 시도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전날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원 상당의 대규모 순매수에 나섰던 외국인들이 오후 1시 현재 1조 4천억원어치를 팔아치우는 대규모 매도 공세에 나서면서 달러/원 환율은 틈틈이 추가 상승 시도에 나서는 모양새다.

물론 최근 외인 주식 매매 동향에 상응한 수준의 외환 수급이 곧바로 수반되지는 않는 것으로 평가되

지만, 커스터디 관련 달러 매수세가 견고하게 유입되는 탓에 시장 내 경계감은 큰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채권 관련한 달러 비드 유입 가능성을 두고 시장은 긴장감을 키우고 있다.

A 은행 외환 딜러는 "주식도 주식이지만 금리가 올라서 아무래도 채권 관련 아웃플로우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시중은행들 중심으로 네고 출회 강도가 거센 만큼 달러/원 환율이 박스권 상단 부근인 1125-1130 원 선에서 만만치 않은 저항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B 은행 외환 딜러는 "오전 거래에서는 업체 물량이 쏟아졌는데 이후 네고 공백이 생기면서 잠시 환율이 오르기도 했다"면서도 "자산시장이 흔들리면서 이에 따른 시장 변동성도 생기고 있지만 아직 환율이 박스권을 뚫을 때는 아니"라고 말했다.

다만 역외 및 커스터디 중심으로 단단한 달러 매수세가 유입 중인 상황에서 네고가 한발 물러선다면 환율이 일시적으로 추가 급등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오전 중 반락 흐름을 보인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오후 들어 저점에서 재반등하고 이에 달러가 강세 압력을 받는 분위기다.

C 은행 외환 딜러는 "네고가 엄청 나오는데 역외들의 매수세도 만만치 않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은 MSCI 분기 리뷰에 따른 지수 조정이 반영될 예정이어서 추가로 변동성이 확대될 여지도 있다. 신흥국 지수 조정은 장 마감 후 반영되며, 조정에 따른 패시브 자금 유출입은 장 마감 직전 동시 호가로 주로 이뤄진다.

(칼럼)-한은 총재가 양적완화 아니라지만 실망할 이유 없다

(※ 이 칼럼은 저자의 개인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월 25일 기사입니다.)

서울 (로이터) 임승규 기자 - 한국은행은 일단 양적완화의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25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이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기자간담회를 지켜보며 든 생각이다.

이 총재는 이날 "필요하면 국고채 매입 시기, 규모 등을 사전 공표할 계획이 있다"는 기존의 발언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한 발 더 나갔다. 국고채 매입 시기, 규모 등을 사전 공표한 후 매입해도 이는 장기 금리 변동성에 대응하려는 것이지, 양적완화 차원의 자산매입 정책과는 다르다고 했다.

'한은이 국채를 매입하기는 하는데 화끈하게 하지는 않으려나 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이 총재가 생각하는 양적완화가 뭔지 더 설명해줬다면 어땠을까?

▲한은의 옛가락 '양적완화' 개념 사용

이 총재의 기자간담회를 보며 지난해 3월 25일 한은의 무제한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발표 당시가 생각났다. 당시 한은은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통해 3개월간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제한 없이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매입 한도를 사전에 정해두지 않고, 시장 수요에 맞춰 금융기관의 응찰액을 전액 공급한다고 했다.

당시 윤면식 한은 부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시장 수요에 맞춰 전액을 공급하는 게 사실상의 양적완화가 아니냐고 한다면 꼭 아니라고 할 수 없고, 그렇게 봐도 틀린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은의 RP 무제한 매입 조치가 양적완화와 다르지 않다는 윤 부총재의 말에 언론은 '한국판 양적완화 개시'라는 헤드라인을 뽑아내기 바빴다.

하지만 무제한 RP 매입은 한은이 지급준비금 잉여를 넘치게 해 시장 전반으로 유동성이 파급되는 속도를 빠르게 하는 조치일 뿐 양적완화는 아니었다.

양적완화의 근간은 한은이 푼 돈을 다시 흡수하지 않는 데 있다.

통상적인 상황에선 은행이 자금 수급을 잘못 예측해 자금을 남길 때 중앙은행에 추가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금융위기로 신용시장이 '레몬 시

장(저금 재화나 서비스가 거래되는 곳)화'될 때 은행들은 추가 비용을 물더라도 자금 운용에 소극적으로 변하게 된다. 거래상대방이 언제 망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시점에 정책당국이 은행의 팔목을 비틀어 대출을 강제하기는 쉽지 않다.

이때 은행의 유휴자금을 중앙은행에 예치하게 한 후 중앙은행이 이 자금을 가지고 국채, 회사채, 주택저당증권(MBS)을 매입하는 게 진정한 의미의 양적완화다.

물론 은행이 중앙은행에 유휴자금을 맡기려면 인센티브가 필요했다. 그래서 미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도입한 제도가 초과지준부리(IOER, Interest On Excess Reserve)다. 은행이 맡기는 유휴자금에 중앙은행이 이자를 지급한 것이 IOER 이다.

중앙은행이 시중 여유자금을 가지고 국채를 매수하면 기업이나 가계의 투자와 소비에 '구축 효과'를 미치지 않고 유통되는 통화량을 늘리게 된다. 유통되는 화폐의 양이 늘어나면 화폐의 현재 가치 하락에 대한 부담 때문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실물 자산 투자를 늘리게 된다는 논리다.

▲ 한은의 양적완화 수사 달라진 이유

이런 논리라면 한은이 국채를 100조원 매입한다고 해도 통안채, 통화안정계정, RP 등 공개시장 운용수단을 통해 유동성을 다시 흡수한다면 양적완화는 아니다.

물론 이런 논리라면 기준금리가 0.5%라도 양적완화를 시작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 정책금리가 0.5%일 때 유동성을 흡수하지 않는 채권 매입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렇다면 양적완화라는 표현을 두고 한은의 최고위임원들의 수사가 달라지는 이유는 뭘까?

지난해 3월의 경우 상황이 급박했다. 코로나 19 확산세가 가속화되며 글로벌 금융시장이 패닉으로 치달는 가운데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50bp 전격 인하한 직후였다. 한은이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 '고강도 조치'를 취한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전해 안정을 도모하는 게 최우선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물론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가시화되고 시장금리가 연중 최고 수준까지 올라선 만큼 한은의 국고채 단순매입이 불가피하긴 하다. 하지만 국제 원자재가격 급등, 코로나 19 백신 접종 기대, 미국 등 주요국의 대규모 재정확대 움직임 속에 자산가격의 버블 우려가 커지기도 했다.

한은이 이 시점에 '사실상 양적완화'에 가까운 추가 조치를 취한다는 언론 헤드라인이 국내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시점이다.

▲시장의 관심은 국고채 단순매입 규모

결과적으로 한은의 정례 국고채 단순매입을 양적완화로 표현하느냐 아니냐는 수사의 문제일 뿐이다.

시장참가자들 입장에서선 수사가 아니라 내용을 봐야 한다.

공식적으로 양적완화 인정을 받느냐 아니냐는 한은의 국고채 단순매입 규모와 큰 관계가 없다. 한은의 국고채 단순매입 규모가 10조원이 됐든 20조원이 됐든 한은이 공개시장 운용을 통해 상당 규모의 유동성을 흡수할 것이기 때문이다.

조만간 발표될 국고채 단순매입 규모와 기한을 결정하는 데 핵심은 '불확실성'이다.

당장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추경 규모가 결정된다고 해도 또 다른 추경이 단시일 내에 다시 편성될 가능성을 한은은 감안해야 한다.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일자리 추경이 예상되는데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과 관련한 법안 통과 이후 추가 재원 확보 논란이 재연될 것을 감안할 때 국고채 단순매입의 시계를 하반기 이후까지 넓히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규모는 지난해 9월 사례를 감안해 예상하는 게 맞을 듯하다.

한은 총재가 양적완화가 아니라고 하지만 시장이 실망할 이유는 없다.

한은도 차후 '한은이 보는 양적완화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 시장과 소통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초점)-국고 10년 2% 터치와 한은의 확대 단순매입 발표..국내 금리 향방은

서울 (로이터) 임승규 기자 - 인플레이션 우려와 함께 전 세계 채권 금리가 급등하면서 국고채 10년물 지표금리가 26일 장중 2%를 찍는 등 시장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S&P500 지수 포함 기업들의 배당수익률(지난해 기준 1.48%)을 넘어선 만큼 시장의 자금이 주식에서 채권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단기적으로 채권 약세 국면의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주장도 적지 않다. 미국 국채 금리 상승세가 주춤해지면 원화채 매수세도 되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각국 중앙은행의 거듭된 부인에도 초완화적 정책의 조기 종료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민감도가 커지고 있는 만큼 "소나기는 피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A 보험사 채권운용팀장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난해 S&P 배당수익률 평균치인 1.48% 위로 오르면서 주가도 끌어내렸다"며 "지금 채권 금리가 경기 개선을 선반영하면서 오르고 있는데 주식은 그동안 더 빠르게 이 부분을 선반영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오히려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채권과 주식의 리스크량이 서로 다른데 채권의 상대가치가 커지면서 주가의 조정 추세가 분명해지면 채권 쪽으로 다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며 "호주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확대나 한국은행의 국고채 단순매입 발표 등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변동성 제어 노력도 가시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B 증권사 채권본부장은 "지금 채권을 매수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인다"며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나 연준 위원들은 현재의 금리 상승이 2013년 수준의 발작을 일으키지 않는 한 용인하겠다는 분위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기관들은 그동안 커브 스티프닝 포지션을 많이 잡았기 때문에 다들 불편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문제는 국내 통화당국의 정책 정상화 시기에

대한 고민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장기 금리 급등에도 트레이딩이 가능했던 건 단기 금리가 잡힌 상태에서 장기물만 흔들렸기 때문"이라며 "단기물도 흔들리는 상황이 되면 아무리 레벨이 좋아 보여도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C 은행 운용팀장은 "미국 금리가 끝을 보기 전에는 우리도 끝났다고 볼 수 없다"며 "국고 10년 기준 2%에서 심리적으로 매수가 나오긴 하겠지만 대외 금리 안정이 되지 않으면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역외 기관들이 그동안 이자율스왑(IRS) 오피를 한 방향으로 해왔는데 이들이 포지션에서 빠져 나와야 하니까 실제보다 더 비드를 강하게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본드스왑 스프레드가 계속 축소되는 이유가 그 때문인 듯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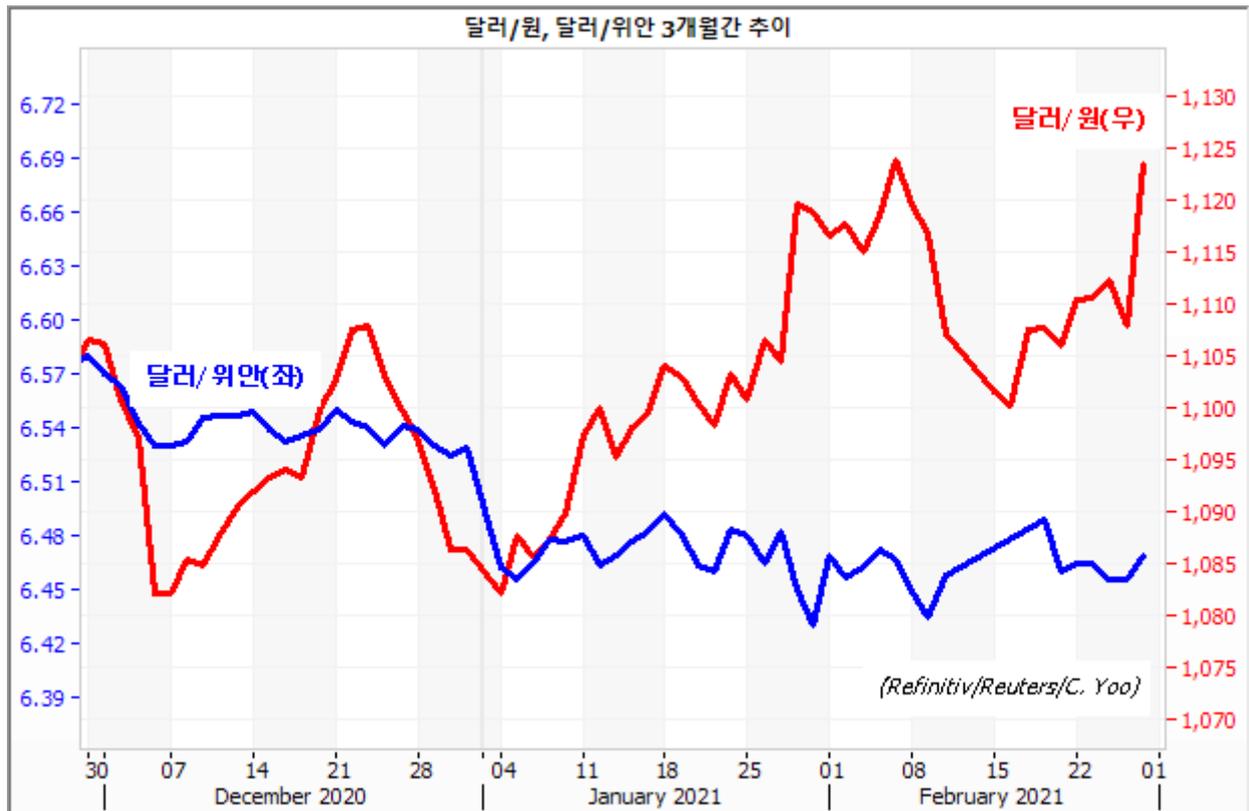
한은의 국고채 단순매입 확대가 분위기 반전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는 기대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D 외국계 은행 트레이딩 헤드는 "단기 금리를 통제하지 못하면 통화정책이 무력화되는 만큼 중앙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금 시장 심리가 너무 많이 다쳐서 채권을 매입할 곳이 별로 없는데 한은이 계획 발표를 넘어 빠르게 액션을 취함으로써 망설이고 있는 투자계정, 상품계정을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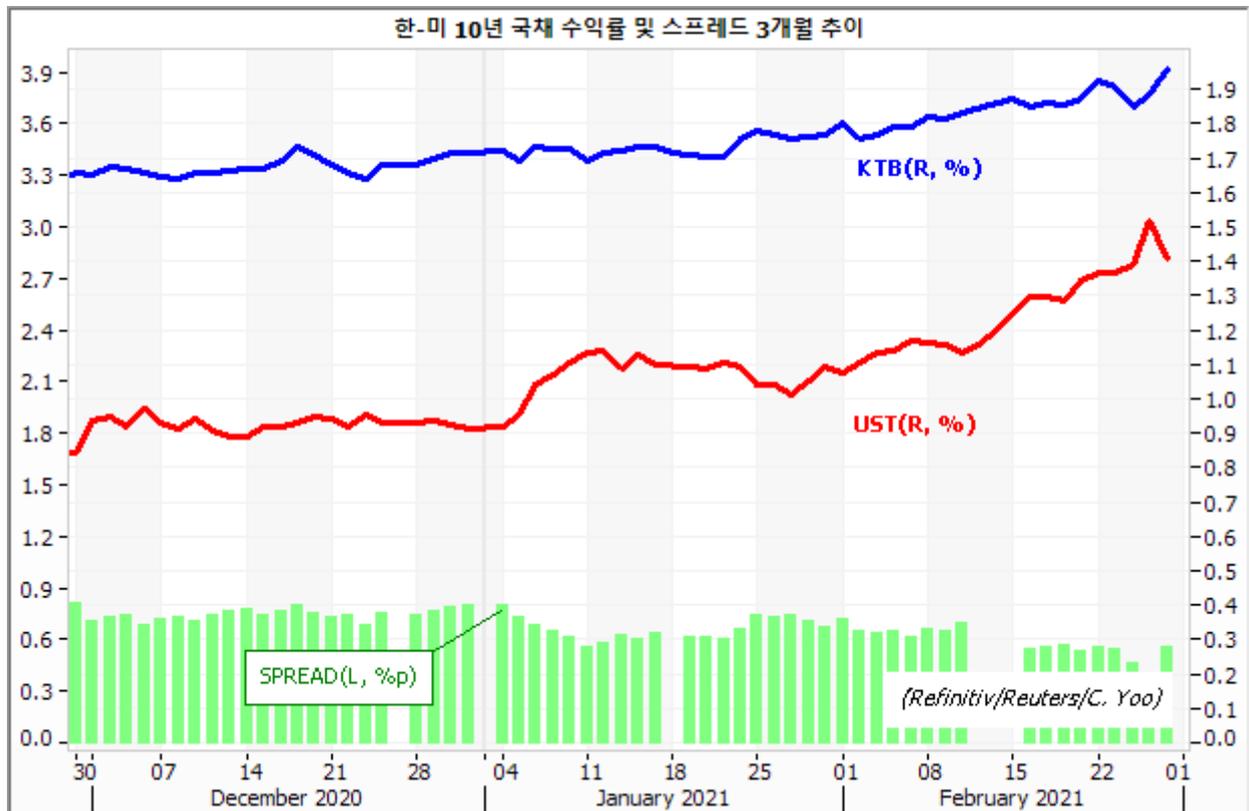
PHOT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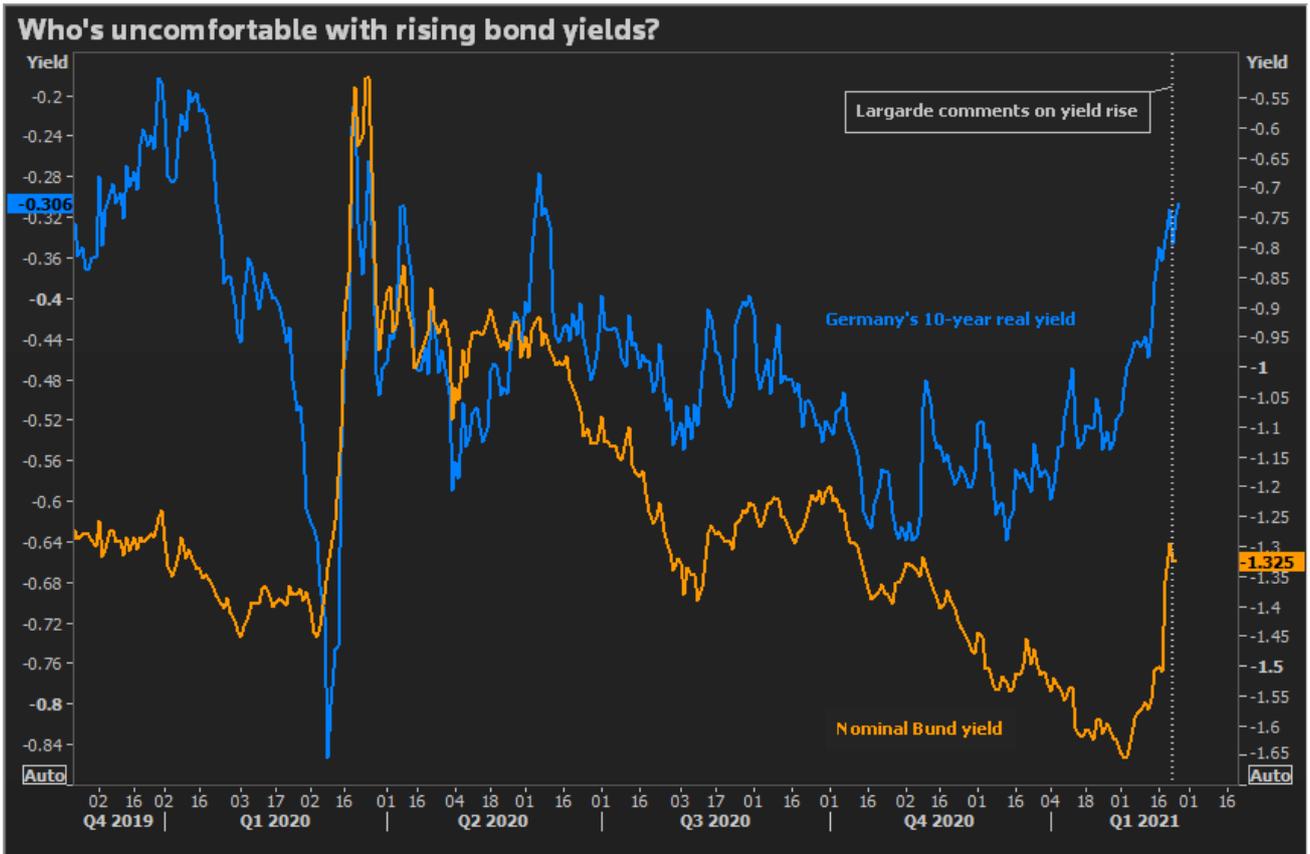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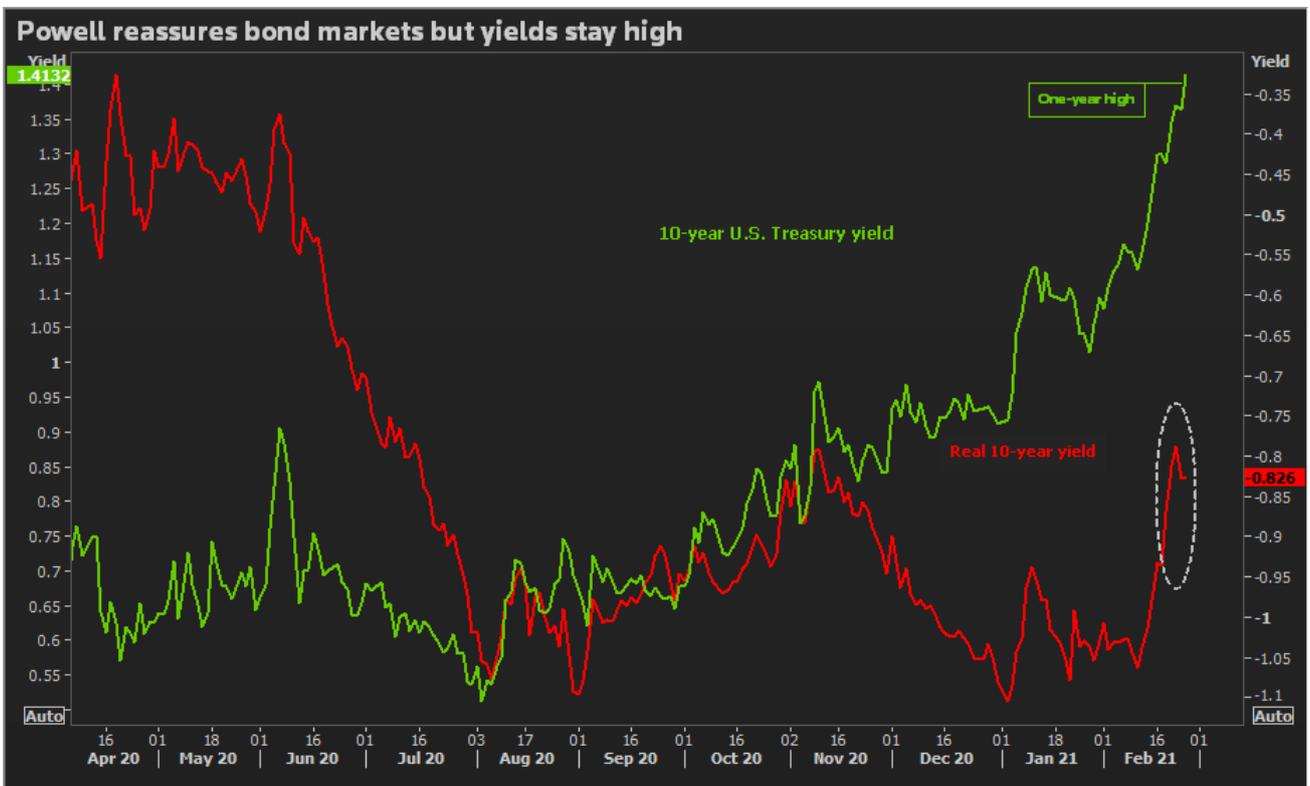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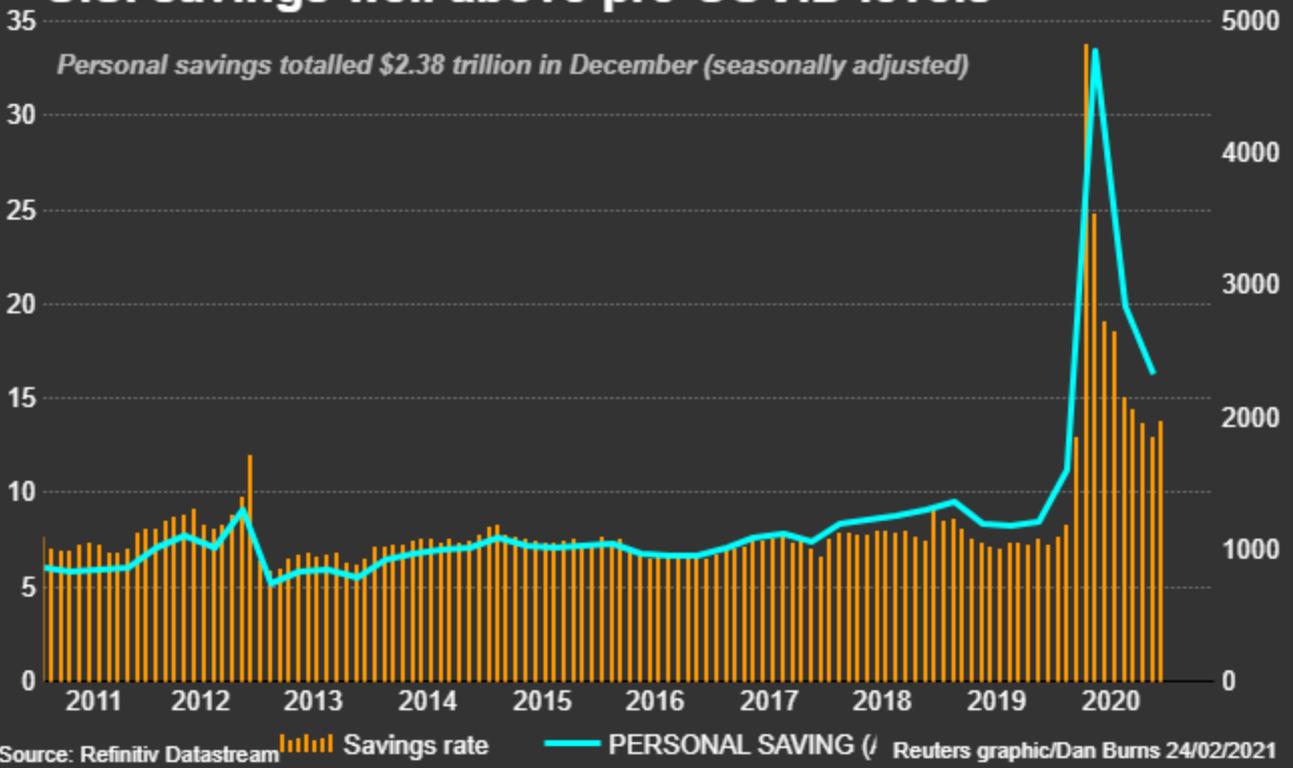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U.S. savings well above pre-COVID levels

Personal savings totalled \$2.38 trillion in December (seasonally adjusted)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